

“삶도 죽음도 마음에 달려… 나만 옳다는 착각 버리세요”

“혹시나 길이라도 잃을까 봐…, 손님은 나와 맞는 게 당연하고.”
의외였다. 요즘 세상에 대문 밖 마중이라니.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등사 회주인 동명 스님(69)은 바깥에서 한참을 기다린 눈치였다.
죄송한 맘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찾는다” 했더니, “큰스님은 말년에도 객을 나와 맞았다. 그게 인정이고 가르침”이라ندا.

그 큰스님은 바로 해안 스님(1901~1974)을 일컫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방에 전하는 불교 전등회(傳燈會)를 만든 고승이다. 올해로 전등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에 동명 스님은 최근 전북 부안군 내소사에 스승을 기리는 심인탑(心印塔)을 세우기도 했다.

—심인탑이란 어떤 뜻인가요.
“불법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렵고, 이룸대로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고 여기면 무방합니다. 큰스님이 열반한 곳에 마음을 심어놓잔 바람이죠. 스승께선 '생사어시 시무생사(生死於是 是無生事)'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기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이것(마음)에서 나왔으나, 마음에는 생사가 없다는 얘기죠.”

—술직히 말씀드립니다.
“단박에 알아듣는 게 더 이상하지요, 허허. 그러니까 삶도 죽음도 세상 모든 일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마음에 얽매이면 안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뱃보다 깨달음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어요. 모두가 마음을 지녔으니 공부하고 참선하면 불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심인탑에도 그런 큰스님의 정신을 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정성을 많이 들였지요. 7년 정도 걸렸나 봅니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전사지 지광국사탑'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높이가 5.5m, 기단 한 변이 4m로 국내 승탑 가운데 가장 큰 규모죠. 훗날 예술적, 문화재적 가치도 고려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효심도 깃들여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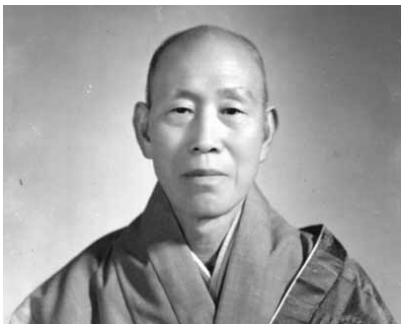
—외롭되지만, 불가에선 연(緣)에 얽매이지 말라지 않나요.
“하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끊으라는 건 사소한 인연이예요. 나라 사랑이나 부모 공경이

서울 전등사 동명 스님

불교 전등회 창립 50주년 기념 해안 스님 기리는 심인탑 세워

모든 만남 소중하게 대한 큰스승 '생사어시 시무생사' 가르침 남겨

양극화 문제도 마음에 달린 문제 포용과 화해로 상대 존중해야



한국불교에서 전등회를 창립한 해안 스님(위 사진)과 최근 전북 부안군 내소사에 건립한 심인탑. 동명 스님 제공

어찌 사소한 일이겠습니까. 스승에 대한 존경도 마찬가지죠. 승려가 속세에서 벗어났다고, 송고한 가치를 저버리란 애긴 아닙니다. 그럼 호국 불교 정신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세상을 버리는 게 깨닫는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과 함께 숨쉬셨습니다.”

—해안 스님도 사부대중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셨다면서요.

“어떤 만남도 소중히 대하셨습니다. 거동조차 힘드실 때, 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아들 장가가는 데 길일을 정해 달라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스님은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호응해 주십니다. 뒤에 말씀이 '쓸데없이 보여도 그분께겐 중요한 일이다. 불법을 묻지 않는다고 존중받을 자격이 없진 않다'고 하셨어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무릎을 딱 쳤죠.”

—큰스님을 위한 또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시일이 좀 걸려도, '수행관'을 건립하려 합니다. 누구나 찾아와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지요. 이젠 큰스님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불가에 몸을 둔 이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요. 요즘 세상이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의견이 갈리는 건 나쁘지 않으나, 상대를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는 건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상처가 참 많아서 그렇긴 한데…, 결국은 마음에 달린 문제예요. 나만 옳다는 착각이 포용과 화해를 가로막습니다.”

전등사를 나서다 문득 궁금했다. “언제 큰스님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동명 스님은 잔잔히 미소로 해안 스님의 시 ‘멋진 사람’을 들려줬다. ‘… 산창(山窓)으로 스며드는 솔바람을 듣는 사람이라면/구태여 불경을 아니 외워도 좋다.’ 문득 하늘이 참 높아 보였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23일 서울 전등사에서 만난 동명 스님. 대화를 나누는 몇 시간 동안 “나보단 스승님(해안 스님)을 좀 더 부각시켜 달라”고 연신 강조했다. “절었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더 뼈에 사무칩니다. 얼마나 큰어른이셨는지, 더 잘 모시지 못해 안타깝워요. 스승의 발자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조계종의 저명한 스님들이 다음 달 11일 사상 초유의 동안거에 들어간다. 자승 성곡 진각 호산 스님(왼쪽부터) 등 9명은 아와 천막에서 추위와 싸우며 묵언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동아일보DB

천막서 묵언수행… 90일간의 고행길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9명 내달부터 ‘상월선원 천막결사’

1일1식하며 외부와 접촉 차단 “한국 불교 중흥의 전기 되길”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불교계에서 저명한 스님들이 한겨울에 아와 천막에서 90일 동안 안거하며 수행한다. 겨울에 여러 스님들이 1일 1식하며 함께 묵언 수행하는 것은 한국불교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 오후부터 경기 위례신도시 포교도량 부지에서 2019년 동안가 ‘상월선원(霜月禪院) 천막결사’가 시작된다. 상월은 서리를 맞으며 달을 벗 삼는다는 뜻에서 지었다.

이번 결사에는 자승 전 원장을 비롯해 정목 동광 성곡 진각 호산 심우 재현 도림 등 9명이 참여한다. 전현직 중앙종회 의원들이 많다. 최고령인 성곡 스님은 세수 73세다. 중앙종회 사무처장으로 이번 결사의 지책(知客) 소임을 맡은 호산 스님은 “난방도 없는 천막에서 한겨울을 보내는 것이라 스님들 건강이 제일 걱정이 다. 따뜻한 물 등을 준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고행은 그뿐만이 아니다. 외부와는 아예 접촉을 끊고, 바깥에서 하루에 한 번 넣어주는 도시

락으로 버틴다. 웃은 한 발만 허용하고, 사발과 목욕도 할 수 없다. 물품도 침낭 1개와 치약, 칫솔, 효자손 정도. 천막 안에서조차 일절 대화를 할 수 없다. 만약 견디지 못하고 퇴방하면 출가수행원으로 살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미리 제출할 예정이다.

일찍이 전례가 없는 수행에 나서는 이유는 뭤까. 일각에선 최근 조계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이벤트’를 벌인단 짐작이 많은 시선도 있다. 호산 스님은 “가장 우려하는 게 그 대목이다. 하지만 다른 뜻이 있다면 조용히 침묵하는 게 낫지, 왜 굳이 이런 큰일을 벌이겠느냐”고 답했다.

호산 스님에 따르면 자승 스님의 결의가 이번 결사의 도화선이었다. 총무원장을 물러난 뒤 백담사 무문관(無門關) 수행에 들어갔던 스님은 주위에 서울역 노숙 정진의 뜻을 밝혔다. 이에 스님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고, 장소를 원각사지가 있는 서울 탑골공원으로 바꿨다가 여의치 않자 위례신도시 부지로 재차 바꿨다. 이곳이 조만간 사부대중을 위한 포교도량을 지을, 뜻깊은 장소라 본 것.

“스님 개개인으로는 수행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목마름이, 불교계에는 새로운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한국불교가 이렇게 생사를 내놓고 노력한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바랄 게 없습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훈민정음 해례본’ 보관할 새 수장고 짓는다

간송미술관 앞에 2021년 건립 국보·보물 등 4000여 점 보관

‘훈민정음 해례본’ 등 국보 12건을 비롯해 간송미술관 소장 문화재 4000여 점을 보관하는 새 수장고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17일 회의를 통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의 ‘훈민정음 보호각’ 건립 설계안을 가결했다. 보호각은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 정문 앞쪽 2146㎡에 지상 1층, 지하 2층(연면적 1218㎡)으로 2021년 6월 들어설 예정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포함한 국보·보물 32건, 시도지정문화재 4건, 비지정문화재 4000여 건 등을 보관할 예정이다. 비지정문화재(전적·典籍 2500건, 회화 949건 등)에도 보물급이 수도룩하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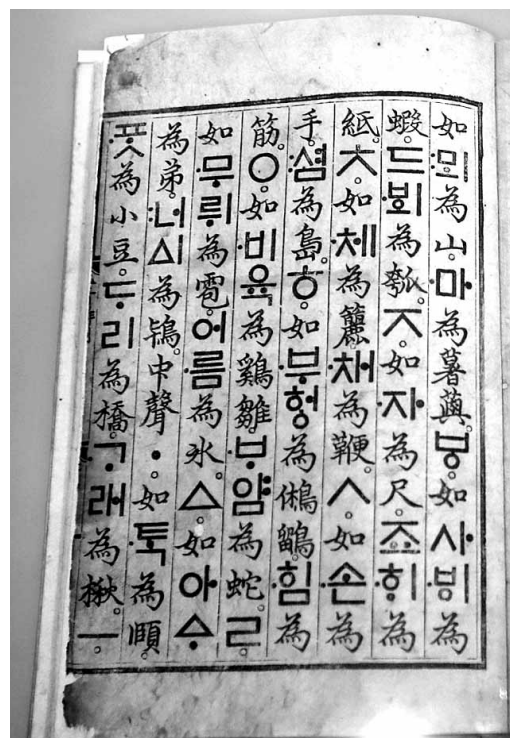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은 ‘민족 문화유산의 수호자’라는 청송을 받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하고 후

손이 지켜온 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현재 미술관 건물은 간송이 1938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다. 시설 노후화로 현대식 수장고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 지 오래다. 현재 간송미술관 소장 문화재의 대부분은 2014년부터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임시로 보관돼 있다.

‘훈민정음 보호각’은 사립미술관 수장고임에도 이례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4억여 원을 건립에 투입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 등 문화재 다량 소장처의 보존 관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보호각 건립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현재 미술관 건물은 옛 ‘보화각’ 모습을 살려 전시장 겸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술관은 2014년 간송미술문화재단을 출범했고 박물관법에 따른 정식 박물관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조종명 기자 jj@donga.com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행방이 묘연한 상주본을 제의하면 유일한 것이다. 동아일보DB

저작권 침해 사이트 1년새 4.4배로 늘어

영화와 방송, 웹툰 등 저작물을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가 올해 1만 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저작권 침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1만383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적발 규모인 2338건의 4.4배가 넘는다.

이들 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에 사이트를 만들어 불법 복제물을 올린다. 불법 복제물로 사이트의 접속량을 늘린 뒤 광고 배너(사이트 화면에서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 이동이 가능한 또 모양의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고 있다. 적발로 인터넷주소(URL)가 접속이 되지 않으면 해당 주소

에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만든 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바뀐 주소를 광고하면서 계속 불법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방심위에서 직접 신고를 받아 심의를 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업무를 일원화한 뒤 처리 시간이 2, 3개월에서 2, 3주로 줄었다”며 “올 초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 후 대체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자 단체,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KBS진미위, 징계요구 권한 없어” 법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인사규정상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진미위의 요구에 따라 KBS가 징계를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KBS는 정 전 국장 등 24명이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만들어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7,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임, 정직, 감봉,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